



• 르셀

# 서울醫大 風土病研究所

# 中央文化大賞 으로 각광

絲狀虫의 化學요법개발

崔 充 運

우리나라의 固有한 風土病을 찾아내고 이 풍토병에대한 調査研究를 통해 問題點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풍토병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事前에 막아낸은 물론 나아가선 국민보건의 증진에로 기여함을 目的으로하는 서울醫大의 風土病研究所.

醫學教育의 전당, 그 뒤편에서 오직 국민보건증진의 사명에 입각, 꾸준히 研究活動에 몰두해 온 同研究所는

그동안 그렇게 쏟은 땀의 結晶이 얼마전 中央日報와 東洋放送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中央文化大賞」의 學術部門에서 受賞者로 뽑힌 榮光의 結實로 이어져 이제 萬人의 각광앞에 참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醫大寄生虫學교실의 徐丙高교수가 이끄는 同研究所는 지난 72年 釜山下端과 河東地域에서 쥐에 寄生하는 怡樂村肺吸虫을 발견해 내고 이 肺吸虫에

대한 生活史를 究明하는 개가를 올림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엔 단 一種인 「웨스터만」씨 肺吸虫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던 定說을 뒤집고 또다른 種의 肺吸虫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 寄生虫學연구에 새로운 轉機를 끌어 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同研究所는 지난 70년 8월 서울醫大同門인 韓炯周(東大門 韓炯周의원장)씨의 협조로 濟州道南濟州郡南元面爲美里에 分院을 설치하고 研究陣을 파견, 絲狀虫의 분포상황을 비롯하여 疫學집단치로법, 매개곤충등에 관한 研究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絲狀虫(象皮病)의 집단치료에 대한 새로운 化學療法을 개발해내는 획기적인 研究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나라 固有의 풍토병에 대한 研究의 관심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1963년 7월 1일, 풍토병연구의 도락을 다지면서 創設, 이제 「江山도 변한다」는 10여년의 年輪을 다져온 同研究所는 지난 8월 서울大學校 舊藥大 1號館 건물로 옮겨 寄生虫疾患部를 비롯 節肢동물 매개질환부, 세균성질환부, 결핍성질환부등 4 個部로 研究體制를 재정립, 研究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단행했다.

지금 이곳엔 23명의 敎職員과 11명의 보조연구원등 모두 34명의 연구원이 묵묵히 맡은바 課題에 대한 研究活動에 맘을 올리고 있다.

同研究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文敎部와 CMB에서 研究費를 지원받았으며 美陸軍省으로부터 研究開發費, 그

리고 日本OTCA로부터 차량을 포함한 5萬弗가량의 기재를 원조받는등 주로 外援을 받아 운영해 왔다는것이다.

同研究所가 연구진들의 꾸준한 연구활동에 힘입어 「中央文化大賞」에 뽑힐만큼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 뒤안길엔 研究費부족이란 경제적인 고충이 도사리고있어 연구활동에 적잖은 지장을 받고있다는 뒷얘기도 있다.

더우기 同研究所는 서울大學校에 산견성에서 除外되고있어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徐丙高소장은 담담함을 털어놓는다.

徐소장은 특히 象皮病에 대한 연구활동은 주로 夜間에 실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研究지역인 濟州道가 거리가 멀어 研究陣들의 활동에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問題點때문에 研究費 획득은 더욱 절실한 問題라고 말한다.

同研究所는 앞으로 肺디스토마를 비롯 肝디스토마 및 腸디스토마등 풍토병에 대한 조사연구에도 손을 넓혀 명실상부한 풍토병연구기구로 성장 발전하느게 당면과업이다.

국민보건을 증진하기위한 풍토병연구에 남몰래 정성을 쏟아온 同研究所는 10여년동안 「濟州道馬來絲狀虫症의 집단관리 연구」를 비롯 무려 85편의 연구논문을 發表, 學界에 깊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으며 徐丙高교수만도 絲狀虫에 관한 논문간도 11편을 발표하는등 우리나라 풍토병연구의 독보적인 기관으로 그 업적이 높히 평가되고 있다.

<필자=醫學同人社 취재부장>